방송콘텐츠진흥재단 보도자료

배포일	2026. 10. 20.(화)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1002
보도일	2026. 10. 20.(화)	www.bcpf.or.kr
총매수	3매	TEL. 02-6123-4300~5

방송콘텐츠진흥재단,
2026년 공영홈쇼핑과 함께하는 우수콘텐츠 시상식 개최

- ‘첫 단추 프로젝트’ 시사회·시상식 및 공익 영상공모전 ‘안전드림’ 시상식 성료



▲ 2026년 공영홈쇼핑과 함께하는 우수콘텐츠 시상식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이 주최하고 공영홈쇼핑이 후원하는 <2026년 공영홈쇼핑과 함께하는 우수콘텐츠 시상식>이 10월 20일(화) 강남 성암아트홀에서 열렸다.

올해 행사에서는 제6회 청년다큐멘터리감독지원사업 ‘첫 단추 프로젝트’ 시사회 및 시상식과 올해로 4회째를 맞은 공익 영상공모전 ‘안전드림’ 시상식을 함께 진행했다.

‘첫 단추 프로젝트’는 제작지원 기회가 부족한 청년 다큐멘터리 감독의 기획안을 발굴해 기획 개발과 트레일러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획안 심사를 거쳐 4편을 선정하고 작품별 500만원의 트레일러 제작지원금을 지급했다.

선정된 감독들을 대상으로 약 6개월간 역량 강화 Docs 워크숍과 온·오프라인 개별 멘토링도 진행했다. 교육과 멘토링을 통해 각 기획안을 구체화하고 트레일러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했다. 멘토로는 EBS 국제다큐영화제 K-Docs 운영위원장인 박봉남 감독과 <정뱅이>로 제23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 한국경쟁부문 ‘우수상’을 받은 오정훈 감독이 참여했다.

<우수콘텐츠 시상식>에 앞서 열린 ‘첫 단추 프로젝트’ Pitching Day에서는 청년 감독들이 완성한 다큐멘터리 트레일러 4편을 피칭 발표했다. 심사를 거쳐 ‘나를 부르는 노래(가제: 그냥 갈 수 없잖아)’의 한상언 감독을 최우수작품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제작지원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첫 단추 프로젝트’에는 1기부터 6기까지 청년 감독 32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25명이 국내외 다큐멘터리영화제 출품 및 수상, 작품 상영, 후속 제작지원 선정 등의 성과를 거뒀다.

1기 김혜이 감독은 <낮에 뜬 달>로 제18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한국경쟁 장편 부문 ‘대상’을 받았으며, 2기 유소영 감독은 <공순이>로 2026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 부문에서 ‘농심신라면상’을 수상했다.

5기 장서윤 감독의 <갱년기 소녀 투쟁기>는 2026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지금여기, 한국영화’ 단편 부문에서 상영됐고, 2026 여성인권영화제 피움초이스 경쟁 부문에서 심사위원 특별언급을 받았다.

6기 지새연 감독은 <지워지지 않는 도시>로 2026 EBS국제다큐영화제 인더스트리영피치 ‘새로운 시선상’을 수상했으며, 전시은 감독은 <진이, 지니>로 같은 영화제 인더스트리 KOCCA 신진다큐창작자 피치 ‘우수상’을 받았다.

프로젝트 참여 이후 후속 작품으로 성과를 이어간 사례도 있다. 3기 도민주 감독은 후속작 <황금동 아가씨와 총을 든 여대생>으로 2026 EBS 국제다큐영화제 인더스트리 KOCCA 신진다큐창작자 피치 '대상'을 수상했다.



▲ 2026년 공영홈쇼핑과 함께하는 우수콘텐츠 시상식

이날 행사에서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개최한 공익 영상공모전 '안전드림'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심사를 거쳐 대상 1편, 최우수상 2편, 우수상 3편, 특별상 4편 등 총 10편을 선정하고 상금 3천만원을 수여했다.

대상은 김찬수씨의 <참을 만큼 참았다 답답해서 직접 밀어버림>이 받았다. 작품은 소방관에게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실제 처분 사례와 소방차로 차량을 미는 실험을 통해 긴급 통행로 확보의 중요성을 전달한다.

재단 강순태 이사장은 "'첫 단추 프로젝트' 참여 감독들이 국내외 영화제 상영과 수상, 후속 제작 지원 선정으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공영홈쇼핑과 함께 '안전드림'을 비롯한 공익 영상콘텐츠와 역량 있는 창작자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하겠다"고 말했다.